

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 내부 4명 vs 외부 2명

‘첫 여성 행장’ 강신숙 연임 도전
신학기·박양수 부행장 대항마로
양제신 전 하나은행장도 주목
노조, 내부지지로 외부인사 혐로



(왼쪽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신학기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아랫줄 왼쪽부터)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 강철승 전 중앙대학교 교수. /뉴시스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을 위한 행장 후보추위원회(행추위)가 가동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숙원 사업인 금융지주전환을 피할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수협은행의 중앙회 독립 후 첫 연임 성공 여부도 관심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오는 12일 최종 면접 대상자를 결정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포함해 총 6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내부출신으로는 강 행장과 ▲신학기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양수 수협은행 부행장 ▲김철환 전 수협은행 부행장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출신에는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가 지원서를 접수했다.

강 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취임 이후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실적을 올리면서다. 특히 신용카드와 외환사업을 강화하면서 비이자이익 확대에 공을 들였다. 은행장으로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것이라 관측이다.

걸림돌은 지주전환 성과다.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M&A(인수합병)가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수협은행은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위해 은행장 직속인

수합병 전담팀을 만들었다. 졸속 인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지부진하단 평가가 나온다.

현재 강 행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2인자’로 불리는 신학기 수석 부행장이다. 신 부행장은 지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인계동지점장 ▲고객지원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석 부행장직은 지난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양수 부행장도 다크호스다. 박 부행장은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방화동지점장 ▲여의도지

점장 ▲수산금융부장 ▲강남기업금융본부 지점장직을 수행했다. 서울시내 유력 지점을 두루 거치면서 영업에 잔뼈가 굵었다는 평가다. 일선 현장에서 기량을 키웠다는 점에서 강 행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철환 전 부행장은 올해 3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김 전 부행장은 1990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점장 ▲영업부장 ▲기업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강 행장을 비롯한 4명 모두 수협 내부 출신인 만큼 박빙이란 분석이다.

외부출신의 경력도 화려하다.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는 25년간 수산업계

에 몸담은 만큼 관련 현안에 밝고,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부행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3번째 도전이다.

양제신 전 하나은행 부행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양 전 부행장은 1986년 한국투자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업계 처음 몸담았다. 이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부사장과 대표직을 지냈다.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손꼽힌다. 수협은행이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종 면접자 명단에 오를 경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시절의 경험을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 외부 인사의 경우 혐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보은성 인사를 겨냥하면서도 내부 출신 행장에 관한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은행장은 행추위원 5명 중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행추위는 정부측 인사 3명과 중앙회가 선정한 2명으로 구성했다. 분수령으로 작용할 중앙회 측 표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노조가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다. 외부인사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라면 노조 또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협은행 같은 특수은행은 내부 현안에 관한 이해도가 중요한 만큼 불리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실시간 상권분석 정보 열린데이터 광장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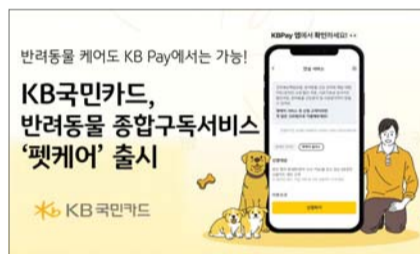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소비 정보를 제공한다.

◆ 데이터 무료 개방

신한카드는 실시간 상권 분석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주요 명소와 공공장소의 인구 현황부터 ▲대중교통 ▲도로 상황 ▲날씨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화이트스캔’과 함께 개발했다.

결제 데이터는 10분 단위로 집계한다. 음식 및 음료, 유통, 패션 및 뷰티, 의료 등 15종의 업종에 관한 실시간 결제금액 및 건수를 월별, 일별 추이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

비대면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 구독 서비스

KB국민카드가 반려동물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공개했다.

◆ 매달 할인 혜택 제공

KB국민카드는 10일 ‘헥토이노베이션’과 함께 ‘펫케어’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월 1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견주배상책임보험 ▲온오프라인 쇼핑쿠폰 ▲비대면 건강관리 ▲반려동물 사료·간식 성분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케어 서비스는 KB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말까지 첫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카드

19개 PLCC 파트너사 협업사례·기술 소개

현대카드가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사 최고 경영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 데이터 사이언스 2000건 구축

현대카드는 언더스테이지에서 ‘2024 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강대현 넥슨 대표, 박준모 무신사 대표 등을 비롯해 파트너사 19곳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진행한 협업 사례와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미래 행동과 이벤트 예측 기술을 적용한 개인화 마케팅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김정산 기자 jkw13@ /김정산 기자

‘찐강남’ 청담동, 10억 로또청약 떴다

‘청담르엘’ 19일 특별공급 시작
분상제 적용, 국평 최고 25.5억



서울 ‘청담르엘’ 조감도.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청담동의 경우 소규모의 고급 빌라 위주로 공급이 많았으나 의미있는 물량으로는 지난 2011년 입주한 청담자이 이후 무려 13년여 만이다. 분양가가 3.3㎡당 약 720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 가운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청약’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이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받는다.

청담 르엘은 지상 35층, 총 1261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149세대다. 대형 평형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면서 전용면적 59㎡, 84㎡만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200만원이다. 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

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평형별 분양가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도 전용 59㎡와 84㎡가 각각 20억 1980만원, 25억 4570만원이다.

인근에 지난 2011년 입주한 청담자

이의 경우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 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전용 89㎡는 3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소형 평형으로는 전용 50㎡이 22억 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담자이의 분양가는 89㎡가 2011년 당시 13억원을 웃도는 등 고가였지만 청약경쟁률이 최고 24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담 르엘은 10년 넘은 구축보다도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낮게 정해지면서 향후 시세차익이 최고 1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분양가는 상한제로 억누르고 있지만 땅값과 공사비 모두 급등하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올해 초 ‘메이플자이’가 3.3㎡당 평균 6705만원으로 ‘래미안 원베일리’(5669만원)를 넘어선 이후 ‘래미안 원펜타스’ 6736만원, 청담 르엘 7200만원 등으로 매년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대우건설 컨소,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수주

1조 3086억 규모, 19개동 신축
현대건설, 올 누적 수주 4조 돌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일 1조 3086억원 규모의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39

층, 19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3102세대와 오피스텔 144실,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사하초·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사하역 포레스트’로 제안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등 6개 사업지에서 총 4조 257억원의 누적수주액을 달성했다.

/전지원 기자 jw13@